

제2세션 발제문

환황해시대의 충남 경제발전 전략

The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of Chungnam in the Era of Pan-Yellow Sea

이 승 훈

(세한대학교 총장)

1980년대 후반 한국의 대중국 교역이 확대됨에 따라,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교역에 유리한 ‘서해안’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남동권의 과밀화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토의 균형개발 정책이 추진되면서, 서해안은 경제개발의 핵심 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이러한 서해안의 중요성은 ‘환(環)황해 경제권’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황해를 인접하고 있는 한국·중국·일본을 축으로 한 동북아 경제권이 세계적인 경제권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에 전 세계의 시선이 쏠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잠재력은 풍부한 시장과 노동력 및 부존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 양질의 노동력과 기술력으로 무장한 한국, 그리고 고도의 기술과 자본을 자랑하는 일본의 저력에 기인한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경제교류가 확대되면서 황해 연안의 임해 공업벨트가 형성되고 전략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환황해권은 한국의 서해안 지역, 중국의 동해연안 지역, 그리고 일본의 큐슈 지역을 일컫는다. 환황해권은 인구가 2억 5,500만 명에 이르며, 지역내총생산(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규모가 약 1조 5천억 달러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경제권이다. 또한, 이 지역은 상호교류 및 협력을 통한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글로벌 광역거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지하다시피, 인구가 14억 명에 육박하는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 중이다. 중국의 최근 경제성장률은 연 평균 7%를 상회하고 있으며, 외환보유고 및 교역규모가 각각 3조 8,900억 달러와 4조 1,600억 달러에 이른다. 1993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故 로버트 포겔(Robert W. Fogel) 前 시카고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에 따르면, 구매력평가(PPP: purchasing power parity) 기준 GDP로 볼 때 중국의 경제규모가 2040년 전 세계 GDP의 4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2000년 만해도 미국의 절반에 불과했던 중국이 2040년에는 미국(14%)을 체치고 압도적인 1위에 오른다는 뜻이다.

또한, 1억 3천만 명에 육박하는 인구나 1조 4천억 달러의 교역규모를 지닌 세계 3위의 일본도 확고한 경제적 위치를 지속할 전망이다. 2014년 현재 일본과 우리나라와의 무역규모는 860억 달러로 중국(2,354억 달러)과 미국(1,156억 달러)에 이어 3번째로 큰 규모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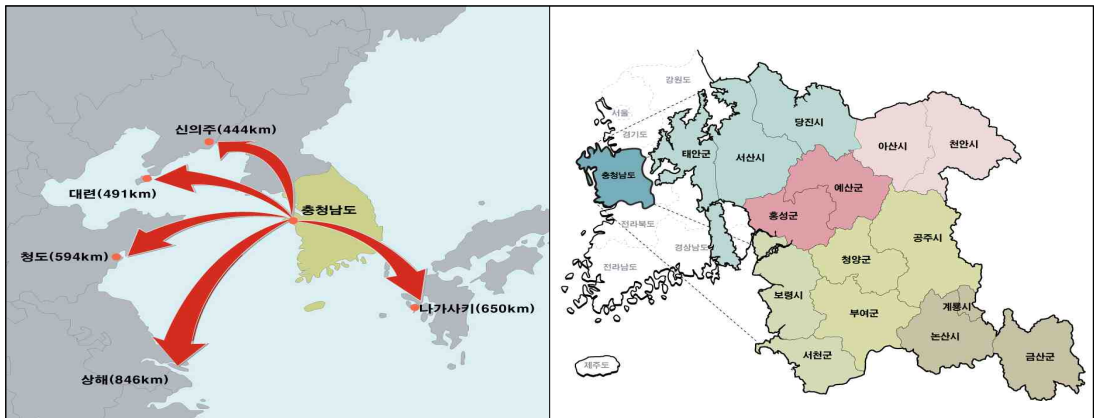
이와 같이 양적으로 크게 팽창하고 있는 환황해 경제권에서는 현재 동남아시아와의 교류 및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10개국으로 구성된 아세안경제공동체(AEC: ASEAN(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Economic Community)에 한·중·일이 포함된 소위 ‘ASEAN+베세토(BESETO)’ 경제블록은 EU와 NAFTA에 이어 세계 3대 경제블록으로 등장하고 있다. ‘ASEAN+3’ 국가연합은 인구가 21억 7천만 명에 이르며, GDP규모가 18조 달러에 달하는 거대 경제블록이다.

이 글의 목적은 이러한 환황해시대에 있어 충청남도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전략을 개관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충청남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국제적인 여건의 변화 및 전망에 대해 고찰한다. 그 후, 환황해시대를 맞이한 충남의 발전 전략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도출하고 토의해보기로 한다.

1. 충청남도 현황

충남의 총 인구는 2014년 12월말 기준 206만 명으로, 세대수는 약 87만 세대이며 세대 당 인구수는 2.4 명이다. 충남은 중국의 관문항인 대련항 및 청도항 등과 최단거리에 입지하고 있어 대중국 교역 및 환황해권 교류의 거점지역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토 균형발전의 중심지 기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충남은 수도권과의 산업경제, 세종시와의 행정, 그리고 대전시와의 R&D 및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유기적인 연계성을 바탕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충남은 15개의 시·군(8개 시, 7개 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행정 구역 면적은 총 8,204km²로 전국의 8.6%를 점유하고 있다. 충남에는 271개의 도서(유인도 32, 무인도 239)가 포함되어 있으며, 해안선 연장은 1,062.2km이다.

〈충남의 지리적 위치〉



충청남도의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 현황으로는 무엇보다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경부·호남·서해안고속도로 및 경부·호남 KTX 등 국가 중추기간망이 충남과 전국을 연결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충남에는 국가산업단지 5개소 등 51개 산업단지와 개별입지(임해산업지역) 3개소가 입지해 있어 중국교역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포함된 95선석 중 67선석(71%)이 충남에 위치한 항만에서 운영되고 있다. 특히,

대산항은 연간 7천3백만 톤에 이르는 물량을 소화하고 있으며, 그 뒤를 당진항(7천만 톤/년)이 따르고 있다.

향후 충남의 SOC 전망도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데 있어 힘을 보태고 있다. 보령-안면도 연육교가 2018년 준공예정(총연장 14.1km 5,400억 원)이며, 서해선 복선 전철도 2020년 준공예정(총연장 90km 3조8,000억 원)이기 때문이다. 서해선 복선철도는 충남 홍성에서 경기 화성을 연결하는 서해 축 국가 간선철도망 중 하나이다. 남쪽으로는 장항선과 연결되어 익산에서 전라·호남선과 직결되고, 북쪽은 경기도 화성시 송산에 연결, 신안산선과 원시-소사-대곡 신설노선을 통해 경의선에 직결됨으로써 서해안 축 남북 종단 간선철도망을 구축하게 된다. 즉, 서해선 복선철도는 서해안을 따라 이어지는 남북 종단 간선철도망인 것이다.

요컨대 중국 중심의 동북아 경제권이 급부상함으로써 환황해 경제권이 세계경제의 핵심으로 주목받는 소위 ‘21세기 신해양시대’가 도래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서해안이 한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축으로 떠올랐고 그 중심에 충청남도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제성장 시기를 간단하게 3단계로 구분하면, 동남권 산업벨트-경부 산업벨트-서해안 신산업벨트로 분류할 수 있다.





2. 여건 변화 및 전망

환황해권 시대 도래의 의미를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중·일 등 환황해 인접 국가들의 경제규모가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 둘째, 환황해권 역내 무역이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 한·중·일 역내 무역 비중은 1992년 14.2%에서 2013년 19.6%로 성장하고 있다. 셋째, 글로벌 경제의 소비지로서 환황해권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는 중국 경제의 성장과 그 역할이 세계의 생산거점에서 소비거점으로 전환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는 것이다.

2.1. 한·중·일 및 동남아시아

한·중·일은 세계인구의 22.3%, GDP의 19.6%, 교역량의 17.6%, 그리고 외환보유액의 45.7%를 차지하면서 NAFTA와 EU에 이어 세계 3위의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환황해권의 면적은 전 세계의 0.5%, 한·중·일 3국의 8%에 지나지 않으나 GDP는 세계의 4%, 한·중·일의 29.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먼저, 중국과의 관계를 살펴보자. 2015년 6월 1일 한·중 FTA가 정식으로 서명되면서 한국과 중국 사이의 상호 교역 및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대일로(一帶一路)의 주창 아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이 출범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증대하고 있다. 최근, 중국경제는 ‘세계의 공장(가공무역 위주)’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이행하는 가운데 성장세의 둔화와 함께 경제구조의 근본적 변화가 진행되는 이른바 뉴노멀(New Normal, 新常态)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이는 물론 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충남경제의 수출 및 성장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회복의 돌파구 찾기가 용이하지 않은 형국이다. 올해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WTO 제소 등으로 인해 한일 관계는 여전히

경색 국면이다. 또한, ‘아베노믹스’에 의한 엔화 약세 기조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원화는 강세를 보임에 따라 한국 기업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고 있다. 이는 중국 관광객 감소 등 한국의 내수시장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2015년 말 출범 예정인 아세안경제공동체(AEC)의 영향력에도 주목하여야 한다. 인구 6억3천만 명, GDP가 2조3천억 달러에 이르는 거대한 단일 소비 시장 및 생산기지가 탄생함에 따라 새로운 비즈니스 및 경제협력의 기회가 도래하기 때문이다.

2.2. 충청남도

충남의 지역내총생산은 2013년 기준 98조 원으로 전국의 7.1%에 해당하고 있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이 북부권의 4개 시(천안, 아산, 서산, 당진)에 집중되어 있다. 한편, 1인당 GRDP는 4,200만 원으로 울산에 이어 전국 2위이나 소득의 40% 정도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유출 비중은 2000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명목GDP를 사용할 경우, 한국의 대외무역 의존도는 2013년에는 82.4%를, 2014년에는 75.8%를 기록하고 있다. 충남의 무역의존도는 이 보다 훨씬 높은 113.25%를 기록하고 있는데, 반도체와 평판디스플레이 및 석유제품 등이 전체 수출의 52.2%를 구성하고 있다. 특히, 중국 수출비중은 2000년 9.1%에서 2014년에는 44.8%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충남의 대중국 수출규모도 2000년 15.5억 달러에서 2014년에는 290억 달러로 약 19배나 증가했다. 그러나 최근 중국경제가 뉴노멀(New Normal, 新常态) 시대에 진입한 가운데 과거 10여 년간 높은 성장세를 지속 하였던 충남경제는 대중국 수출 감소 등으로 성장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난관은 충남과 중국과의 더욱 활발한 교류를 통해 극복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서산 대산항-중국 용안(龍眼)항 간의 국제여객선 터미널이 완공되면 충남과 중국 사이의 인적 및 물적 교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산항과 용안항 사이의 거리는 339km로 양국 간의 최단거리이며, 국제여객선이 매주 3회 취항하면서 5시간 만에 왕래가 가능해져 중국인 관광객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이러한 기회를 계기로 충청남도가 환황해권 경제시대의 전진기지가 되어야 한다. 중국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대산항에 국제여객선 터미널이 완공되면, 양국 사이의 인적·물적 교류 확대를 통해 충남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충남은 대산항 외에 당진항 및 보령신항을 3대 항만으로 선정하여 물류-산업-관광이 어우러진 종합 항만으로 개발할 예정이며, 하늘과 바다 및 육지를 연결하는 광역 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충남을 환황해시대 국제물류 항만의 거점지대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충남의 첨단산업은 더욱 더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한편, 백제역사 유적지구가 유네스코에 등재됨에 따라 백제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KTX 공주역 개통, 서해안 복선전철 착공, 그리고 2018년 안면도-보령 연육교가 준공되는 등 수도권 접근 향상으로 충청남도의 관광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정부는 서해안 벨리 국가계획으로 고부가가치 기업유치, 관광활성화, 그리고 항해권 물류 집적지 역할 수행 등을 주요 사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계획에 있어 충남도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예를 들어, 3대 특화 항만 육성뿐만 아니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서해안 지역의 광역지자체와의 상호연계 협력방안 도출에도 힘써야 한다.

서해안의 잠재력과 보완점을 SWAT 분석을 통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출처: 충청남도 정책기획관실 환황해 T/F팀).

〈SWOT 분석〉

<div>외적요소</div> <div>내적요소</div>		기회(O)	위협(T)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중 FTA 체결 •호남선 KTX 개통(공주역) •중국인 관광객(요우커) 증가 •대산항 국제여객 운항 •백제문화유네스코 등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해안밸리(인천-평택-군산-영암) 제외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 •주변 시·도와의 유사한 정책·사업 경합 •수도권 규제 완화 정부 정책 기조
강점(S)	약점(W)	(SO)	(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부가가치사업, 고도기술 보유 기업 중점 유치 및 신성장 융복합 전략 마련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 마련, 충남관광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황해권 물류 집적지 역할 수행 •서해안 밸리 구축 계획에 道 비교 우위 산업기반시설 등이 포함되도록 노력
강점(S)	약점(W)	(WO)	(WT)
		<ul style="list-style-type: none"> •FTA 플랫폼을 활용한 한중 산업단지 조성 •3대 특화항만 육성 및 국제 항공·해운항로 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對중국 교류 위한 중복투자 및 경쟁 지양, 상호연계 협력 통해 상생발전 방안 마련

3. 충남의 발전전략

환황해시대를 맞아 충청남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황해를 아시아의 물적·인적 교류허브로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3대 권역별 특성을 살린 구체적인 협력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G2로 부상한 중국과는 교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일본과는 평화 공존을 위한 지방 차원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2015년 말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에 따른 협력 강화에도 지혜를 모아야 한다.

또한, 황해를 아시아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다음의 4가지 측면에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먼저, 외교전략 측면에서는 중앙정부와 구별되는 지방 정부, 민간과 구분되는 공공부문으로서 충남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는 지방 외교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시아 국가의 전문 인력 확보 및 신속한 대응체제 마련으로 효과적인 전략수립 및 정책 추진이 이뤄져야 하며, 아시아 평화 공동체 구성 및 대중국 교류 전략을 수립하여 아시아의 공동번영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인프라 측면에서는 환황해권 연계를 위한 해상·항공 기반 구축 및 국제교통망 확충으로 무역과 교류를 촉진하여야 하며, 세 번째 투자 및 통상 측면에서는 해외 홍보와 인센티브를 통하여 우수 외국기업이 충남에 투자하도록 유인하여야 한다. 마지막 관광마케팅 측면에서는 차별화되고 특화된 마케팅 전략을 마련하여 충남의 관광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권역별 특징을 살린 다 방면의 이러한 계획은 충청남도가 황해의 구심점으로 황해권 물류와 산업 네트워킹의 주요 거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큰 그림을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몇 가지 구체적인 전략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3.1. 비교우위

기본적으로 나라간의 교역은 비교우위 논리에 토대를 두고 있다. 황황해시대를 맞아 충청남도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비교우위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하여 교역으로부터의 이득(gains from trade)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사실, 이는 한 나라의 경제가 기술진보(technological progress)에 의해 성장하는 것과 거의 동등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우선, 충청남도의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융복합화하여 비교우위를 제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충남도의 산업 및 과학기술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주력기반과 미래 성장산업을 선정하여, 연계와 융합을 통해 산업발전을 추진할 수 있다.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 화학 및 금속소재, 기계부품가공 등의 소재 및 부품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한 가지 구체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지역산업기반을 융복합하여 미래 성장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도 전략적인 방안의 하나로 제시할 수 있다. 이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는 산업으로는 이차전지, 청정에너지,

ICT융합, 라이프케어와 향산화 및 항노화 식품과 같은 기능성 식품 등을 꼽을 수 있다.

부가가치를 높여 비교우위를 제고할 수 있는 산업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생활경공업 분야도 있다. 최근 디자인과 감성을 중시하는 고부가가치 생활경공업 분야의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어서, 이것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중국과의 경쟁에서 의료분야 및 화장품에 이어 생활용품과 생활가구 등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대두하고 있고, 중국의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고부가가치 생활경공업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생활용품 디자인 박물관 및 생활디자인 파크를 조성하여 중국 및 동아시아 수요를 창출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사물, 이미지, 공간, 뉴미디어, 서비스와 연계한 디자인 온라인 콘텐츠 및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도 주요 사업이 될 수 있으며, 서해안 경관 개선사업을 디자인 생태전원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하는 것도 계획해 볼 수 있다.

비교우위의 창출은 새로운 시장개척에서도 이뤄질 수 있다. 중국과의 FTA체결에 따른 대(對)중국 수출전략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개척을 위한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 및 아시아권과의 교류확대를 통한 타깃 산업을 선정하고,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개척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야 한다.

교역에 있어서의 비교우위는 산업단지를 전략적으로 육성함으로써도 가능하다. 중국 및 동아시아 교두보로서의 아산만권 ‘아시아 투자산업지역’의 조성을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다. 서산-천안-아산을 연계하는 아산만권은 한국의 국가 기간산업이 집적된 최대의 산업집적지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충남의 지리적·산업적 강점을 활용하여 아산만권을 중국 및 동아시아 진출입의 전진기지로 조성하여,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하고 중국자본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별 특성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환황해권 교통 물류 거점시설을 조성하여 비교우위를 높일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자원·원료 수송 중심의 항만을 복합물류 및 수요 창출형 항만으로 개발하여, 소위 ‘다기능 종합항’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또한, 항만과 항공을

연계하는 물류네트워크의 거점시설 조성도 매우 중요하다. 항만거점시설의 확충에 있어서는, 당진항과 대산항 등의 항만 부두시설 개량하여 교역은 물론 레저기능까지 포함된 다기능, 다목적 복합시설을 조성하여야 한다. 또한 항만 배후단지 조성 및 국제항로 조성에 이르기까지 세밀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한편 공항거점시설 조성에 있어서는, 서해공항(서산비행장 민항기 취항) 및 항공정비산업단지(MRO) 조성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태안 비행장과 연계한 주요 항공부품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항공정비 인재를 양성하는 등 항공정비산업단지를 함께 조성할 필요가 있다.

3.2. 친환경에너지

환황해권 시대를 맞아 충청남도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또 다른 전략으로는 친환경에너지 산업에 특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여기에는 서해안 친환경에너지 산업벨트 조성, 수소밸리 구상 및 에너지 자립마을 구축 등이 포함된다.

서해안 친환경에너지 산업벨트는 서해안 화력발전 설비에 대한 CO₂ 저감과 차세대 에너지 산업의 육성을 통해 조성될 수 있다. 이 경우 전국 최대 화력발전 설비의 지속적인 확장에 대한 친환경적 개발 요구와 중부·서부발전 본사의 이전과 연계한 상생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종국적으로 충청남도 서해안에 집중된 화력발전 인프라를 자원화하여, 미래 기술개발에 대응한 친환경 에너지 산업벨트를 조성하여야 한다.

인류역사상 에너지는 석탄 → 석유 → 가스 → 재생에너지(수소)로 전환되고 있다. 미래의 에너지로 수소가 주목받으면서, 소위 ‘에너지 혁명시대’ 혹은 ‘미래 수소 경제시대’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수소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수소 밸리’의 조성에 충청남도가 뒤쳐질 수는 없다. 에너지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충청남도 지역 내 부생수소의 활용과 지역산업기반과 연계한 융합형 수소산업 육성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수소-(전력)저장-재생에너지를 연계한 분산전원 복합구상의 수립도 필요하다.

친환경에너지 사업은 기본적으로 절약의 미덕을 실천할 것을 요구한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다른 아닌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확대하여 에너지 자립을 통한 소위 ‘희망에너지 마을’을 조성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희망마을 만들기’와 ‘탄소중립마을 조성’ 등의 사업과 연계하고, LED 보급, 그린빌리지, 그린홈 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해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구상하여야 한다.

3.3. 지역 대학활용

지역 대학연합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지식산업 혁신센터, 그리고 연구개발 특구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충청남도는 지역 대학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충남도는 그동안 제조업 중심의 산업거점으로 발전하여, 지역 내 R&D와의 연계가 부족해 새로운 창업과 산업육성에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창업과 기술사업화 및 기술교류 등을 통한 충남도의 차세대 성장주자를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충남권 대학들을 연합하여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산업정책과 기술개발 및 사업화모델을 한 틀에서 해결하는 사업을 구상해 볼 수 있다.

또한, 충남도의 미래 산업을 이끌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첨단시설 및 인프라 확충에도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벤처 및 지식기반기업의 육성을 위한 충남권 대학연합 지식산업 혁신센터의 조성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천안·아산 융복합집적지 조성과 연계하여 벤처타운을 공동으로 조성하는 방안과 충남테크노파크 부지를 활용하여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여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충남권 대학들을 포함한 연구개발 특구를 조성하여, 신기술을 창출하고 R&D 성과를 확산시키는 동시에 사업화도 촉진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과학벨트 기능지구(천안, 청주, 세종) 사이의 연계를 통해 신소재 및 바이오산업의 생산시설 집적에 따른 기대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한다.

3.4. 위기관리

충청남도의 산업구조 특성은 수출중심의 대기업 의존형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는 글로벌 경기변동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의미한다. 특히, 경기변동에 민감한

주력 산업위주로 세계경제 변화에 따라 수요의 변동성이 심화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충청남도 유관기관 사이의 공조를 통해 경제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시 운영하여야 한다. 물론 이 협의체에는 경제전문가가 포함되어 경제동향을 예측하고 논의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경제 분야 위기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단계별 지원정책을 유연하게 구사하여야 한다. 경제상황에 맞게 재정지원을 하는 등 단계별로 지원책을 펴야 효과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더불어 충남지역의 경제모니터링 기능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특정 산업과 특정 경제부문에 대한 경제지표를 설정하여 지역 밀착형 모니터링을 추진할 수 있다.